

1910년 전후 한국 근대여행의 한 기원

강정구*

-차 례-

1. 서론
2. 근대적 여행주체의 형성
3. 주관화·자의화된 근대적 여행객체의 발견
4. 거리와 구경이라는 스타일을 창조하는 근대적 여행매체
5. 결론

* 성결대학교 파이테이아학부 조교수, kangel@daum.net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1910년 전후 한국 근대여행의 한 기원을 살펴봤다.

먼저, 근대적 여행주체는 중세·개화기의 여행주체와 달리, 외부세계를 무관심하고 냉담하게 대상화함으로써 스스로의 내면을 탐구하며 여가를 즐기는 탈(脫)일상적·유희적 존재였다. 그는 자신의 시선을 외부세계에서 자기 자신에게 돌리고, 무료하면서도 여가를 즐기고 노는 자였다. 그리고 근대적 여행객체는 여행주체에 의해서 기존의 역사적·문화적 의미를 잃고서 균질적·물리학적인 하나의 실체로 발견되고, 주관화·자의화된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았다. 여행주체에 의해서 역사적·문화적 의미가 전유·은폐됐고, 그의 내면이 투영된 새로운 기의를 지니게 됐다. 마지막으로 기차·관광단 등의 근대적 여행매체가 거리와 구경이라는 여행의 근대적 스타일을 창조하는 인식론적인 변화를 살펴봤다. 기차·자동차 등의 근대적 여행매체는 여행의 주체·객체 사이에 일정한 물리적 거리를, 그리고 관광단이라는 근대적 여행매체는 일정·코스를 통해 역사적·문화적인 시공간이 분할된 구경이라는 근대여행의 스타일을 만들었다.

주제어 : 1910년대, 근대여행, 근대여행의 기원, 여행주체, 여행객체, 여행매체, 거리와 구경

1. 서론

한국 근대여행의 기원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서양인의 한반도 여행이나 조선인의 서양 유학이 중심이 된 19C 말부터 1910년까지의 개화기 여행, 그리고 191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 뚜렷하게 그 성격을 드러낸 근대여행의 사이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근대여행의 탄생은 근대 교통의 발달과 일본여행협회 조선지부 설치라는 조건이 만들어지면서 가능한 것으로 관광학계 쪽에서 이미 검토된 바 있었는데,¹⁾ 이러한 조건과 아울러 여행 주체·객체·매체가 어떻게 1910년 전후 근대의 인식론적인 장에 출현했는가 하는 문제는, 근대여행의 기원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1910년 전후의 시기에 근대여행이 외부세계를 무관심하고 냉담하게 대상화함으로써 자신의 내면을 보고 여가를 즐기는 여행주체가 형성되면서 기원됐고, 그 여행주체가 외부세계(여행객체)를 하나의 균질적·물리학적인 실체로 보면서 자신의 내면을 투영해서 주관화·자의화했으며, 기차·자동차·관광단 등의 여행매체에 의해서 주체·객체가 분리된 근대여행의 스타일이 창조되었음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근대여행의 기원을 탐색하는 작업은 근대적 주체가 자신의 무한한 내면성 속에서 외부세계와 관계를 맺는 내밀한 방법을 선명하게 드러낸다는 점에서 인식론적인 것이 된다.

이 연구에서 말하는 여행(travel)이란 주체 자신이 원래의 위치에서 벗어나 어디론가 돌아다니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출장·유학·유람·시찰·순례·관광 등의 회귀형 이동을 의미한다. 또한 근대여행이란 여행의 3요소라 할 수 있는 주체·객체·매체가 근대적인 성격을 띠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주체는 여행자를, 객체는 여행의 자원·장소를, 그리고 매체는 교통·숙박시설과 관광단·협회 조직을 뜻한다²⁾ 1910년 전후에는 여행 주

1) 조성운, 「1910년대 식민지 조선의 근대 관광의 탄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6,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8, 103-146면.; 박양신, 「일본의 한국병합을 즈음한 '일본관광단'과 그 성격」, 『동양학』 37,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05, 69-89면.

2) 강익준은 관광의 3요소를 관광 주체·객체·매체로 분류했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류를 여행에 적용해서 여행의 3요소를 여행 주체·객체·매체로 규정하고자 한다. 관광은 여행의 한 종류라는 점에서 활용가능하다고 본다. 강익준, 『관광학개

체·객체·매체가 근대적으로 변화하면서 조선시대의 유학자들이 선유(先儒)를 좇던 중세의 여행, 그리고 유길준·민영환 등의 유학생·특사가 서양의 과학지식을 학문적으로 이해하고 조선인의 문명화를 도모하거나 혹은 서양인이 한반도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오리엔탈리즘적인 시각을 지니던 개화기의 여행과 구별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1910년 전후의 여행 기록은 본 연구의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중세적인 유람이나 서양견문록의 형태와 구별되고, 근대적 교통·숙박 시설을 이용하면서 근대적 주체와 객체라고 할 수 있는 여행자와 장소가 출현한 기록을 뜻한다. 이 연구에서는 최남선이 주도한 잡지 『소년』에 나와 있는 「快少年世界周遊時報」(1908), 「嶠南鴻爪」(1909), 「海上大韓史」(1908), 「平壤行」(1909), 그리고 『慶南日報』와 『매일신보』에 실린 「金剛을 紹介天下」(1914)와 각종 관광단들의 기록이 본 논의에서 말하는 근대여행에 부합된다고 보고서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서 여행이 근대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검토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한국 근대여행에 대한 연구사에서는 주로 유학생·서양인의 개화기 여행과 1910년대 이후의 근대여행에 집중되었을 뿐, 1910년 전후의 인식론적인 기원 검토가 심도 있게 진행되지 못한 감이 있었다. 개화기 시기 여행 기록에 대해서는 주로 서양인의 한반도 여행이나 조선인의 한반도 내외부에 대한 여행 유형·교통·숙박 등이 논의되었다.³⁾ 또한 오르페트(Ernst J. Oppert) 이후의 서양인 한반도 여행기·체험기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적 시각과 그 비판,⁴⁾ 혹은 유길준·민영환 등의 조선인 서양 여행기·유학기록에 나타난 서양 이미지 등이 관심의 대상

론』, 삼영서관, 2009, 3-365면..

- 3) 한경수, 「한국의 근대 전환기 관광(1880~1940)」, 『관광학연구』 29.2., 한국관광학회, 2005, 443-464면.; 한경수, 「한반도 관광산업의 태동 -개화기 및 일제강점기」, 『관광학연구』 35.10., 한국관광학회, 2011, 349-369면.
- 4) 김상민, 「여행기를 통해 본 동서양의 교류와 소통 : 서양문헌에 나타난 한국 -정형화된 이미지와 사실의 간극」, 『동국사학』 49, 동국사학회, 2010, 177-212면.; 박지향, 『일그러진 근대-100년 전 영국이 평가한 한국과 일본의 근대성』, 푸른역사, 2003.; 이지은, 『왜곡된 한국 외로운 한국 : 300년 동안 유럽이 본 한국』, 책세상, 2006.; Andre Schmid, 정영울 역, 『제국 그 사이의 한국 1895-1919』, 휴머니스트, 2007.; 황민호, 「개항 이후 근대여행의 시각과 여행자」, 『승실사학』 22, 승실사학회, 2009, 5-34면.

이 됐다.⁵⁾

그리고 1910년 전후와 1910년대의 여행 논의에서는 주로 일본여행 협회 조선지부나 각종 관광단 등과 같은 여행 매체가 주목되거나, 여행이 취미화·여가화된다는 점이 주로 검토되었다. 조선인의 국내외 관광단 조직과 그 성격이 파악되었고,⁶⁾ 일본여행협회 조선지부의 창립·활동 등이 사례 중심으로 살펴졌다.⁷⁾ 또한 근대기행문에 나타난 여행주체의 감각·취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기도 했다. 자연·국토가 주체의 근대적인 시각으로, 균질적인 공간표상으로, 또는 심미적·취미적인 심상으로 인식되는 양상을 분석한 것이었다.⁸⁾ 아울러 기차의 근대문명적 의미에 대한 검토들도 있었다.⁹⁾

-
- 5) 김태준, 「유길준의 『서유견문』에 대하여」, 『한민족 주시경연구』 17, 한글학회 2004, 65-80면.; 한경수, 「한국의 근대 전환기 관광(1880~1940)」, 『관광학연구』 29.2., 한국관광학회, 2005, 443-464면.; 구지현, 「유길준의 『서유견문』에 보이는 견문록의 전통과 확대」, 『온지논총』 37, 온지논총, 2013, 99-123면.; 김정남, 「1910년대 기행 담론과 기행문의 성격」, 『인문과학연구』 37,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85~106면.; 강지혜, 「근대전환기 조선인의 세계기행과 철도 담론」, 『문화와 융합』 39.3., 한국문화융합학회, 2017, 303-332면.
- 6) 김정훈, 「“한일합병” 전후 국내관광단의 조직과 그 성격」, 『역사학연구』 25, 호남사학회, 2005, 187-206면.
- 7) 조성운, 「『每日申報』를 통해 본 1910년대 일본시찰단」, 『한일민족문제연구』 6, 한일민족문제학회, 2004, 3-36면.; 조성운, 「1910년대 식민지 조선의 근대 관광의 탄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6,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8, 103-146면.
- 8) 김현주, 「근대 초기 기행문의 전개 양상과 문학적 기행문의 “기원”」, 『현대문학의 연구』 16, 한국문학연구학회, 2001, 95-129면.; 이현진, 「근대 계몽기의 매체와 담론 ; 근대 초 취미의 형성과 의미 분화」, 『현대문학의 연구』 30, 한국문학연구학회, 2006, 45-70면.; 윤영실, 「'경험'적 글쓰기를 통한 '지식'의 균열과 식민지 근대성의 풍경 = 최남선의 지리담론과 『소년』지 기행문을 중심으로」, 『현대소설 연구』 38, 한국현대소설학회, 2008, 223-244면.; 광승미, 「『소년』 소재 기행문 연구」, 『現代文學理論研究』 46, 현대문학이론학회, 2011, 5-27면.; 김효주, 「1920년대 여행기의 존재 양상」, 『국어교육연구』 48, 국어교육학회, 2012, 317-354면.
- 9) 김동식, 「철도의 근대성」, 『돈암어문학』 15, 돈암어문학회, 2002, 39-67면.; 우미영, 「視角場의 변화와 근대적 心象 空間 - 근대 초기 기행문을 중심으로」, 『어문 연구』 32.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4, 327-351면.; 김미영, 「근대소설에 나타난 기차 모티프 연구」, 『한국언어문학』, 한국언어문학회, 2005, 235-262면.; 김중철, 「근대 초기 여행기에 나타난 활동사진의 비유에 대한 연구」, 『한국언어문학』 29, 한국언어문화학회, 2006, 267-289면.; 홍순애, 「근대초기 지리학의 수용과 국토여행의 논리」, 『한중인문학연구』 34, 한중인문학회, 2011, 33-53면.

한국 근대여행이 본격화된 1920년대에 대한 논의들에서는, 주로 여행 유형·교통·숙박에 대한 조사·검토가 있었고,¹⁰⁾ 1920년대 국토순례가 근대여행의 주요 양상으로 드러난 점이 밝혀지기도 했다.¹¹⁾ 이러한 논의들은 모두 나름의 의미·가치를 지니는 것이었으나, 1910년 전후에 한국 근대여행의 주체·객체·매체가 어떻게 기원했는가 하는 인식론적인 차원이 의미 있게 규명되지 못해 아쉬운 감이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사의 주요 성과를 수용·참조하면서 한국의 근대여행이 1910년 전후에 어떻게 기원했는가 하는 문제를 인식론적인 차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가리타니 고진의 논의를 참조해서¹²⁾ 외부세계를 무관심하고 냉담하게 대상화함으로써 자신의 근대적 내면성을 확보하고 여가를 즐기는 여행주체가 형성되고,¹³⁾(2장) 나름의 역사적·문화적 의미를 지닌 외부세계가 균질적·물리학적인 실체로 보이면서 주관적·자의적인 하나의 풍경으로 발견되며,^(3장) 기차·관광단 등의 여행매체가 주체와 객체를 분리해서 거리와 구경이라는 여행의 근대적 스타일을 만드는 기호론적인 인식 구도의 전도에 대해서^(4장) 살펴보고자 한다.

10) 한경수, 「한국의 근대 전환기 관광(1880~1940)」, 『관광학연구』 29.2., 한국관광학회, 2005, 443-464면.; 한경수, 「한반도 관광산업의 태동 -개화기 및 일제강점기」, 『관광학연구』 35.10., 한국관광학회, 2011, 349-369면.

11) 이지훈, 「한국 근대문학 형성기의 여행 서사 연구」, 서울대학교원 박사학위논문, 2017, 1-225면.

12) 가리타니 고진은 그의 저서 『일본근대문학의 기원』에서 근대적인 풍경의 발견이 주위의 외적인 것에 무관심한 내적 인간에 의해 이루어졌고, 외적인 것의 역사성이 은폐되고 일종의 왜곡·전도된 새로운 시간성(기원) 위에 존재함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그의 논의는 본 연구에서 여행 주체와 객체가 형성되는 양상을 살펴볼 때에 좋은 참조사항이 된다. 柄谷行人, 박유하 역, 『일본근대문학의 기원』, 도서출판b, 2010, 7-211면.

13) 이 연구에서 근대적 내면성이란 데카르트의 인식주체(cogito)의 인식을 뜻한다. 이 인식주체는 신·신분 등의 어떤 다른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내적 능력에 따라서 사고·판단하는 근대적인 주체로 이해된다. 인식주체는 자신의 인식 이외의 것(객체)은 균질적·물리학적인 실체인 연장으로 대상화·객체화한다. 본 연구자는 근대적 여행주체의 형성과 여행객체의 발견을 이러한 근대적 주체·객체의 논리를 바탕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2. 근대적 여행주체의 형성

1910년 전후에 중세적·개화기적 여행주체와 다른 근대적 여행주체가 형성되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다.¹⁴⁾ 근대적 여행주체가 중세적·개화기적 여행주체와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점은 여행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으로 향한다는 점이다. 여행이란 외부세계를 돌아다니는 행위임은 분명하지만, 근대적 여행주체가 여행을 통해서 원하는 궁극적인 점은 외부세계를 보고 배우는 데에 중점을 둔 중세·개화기의 여행과 달리, 자기 자신이 일상에서 받는 생활의 여러 압력을 벗어나고 스스로의 내면을 탐구하며 여가를 즐기는 것이다.

이러한 여행의 의미 변화는 중세·개화기의 여행과 1910년 전후의 근대여행을 비교해보면 잘 확인된다. 조선시대의 유학자들이 보여준 기행시, 개화기의 조선인이 기록한 서양체험기, 그리고 1910년 전후의 기행문을 비교해 보면 시기별로 여행주체의 성격이 달라진다. 1910년 전후의 근대여행에서는 그 이전의 시기와 다른 여행주체의 모습이 인식론적인 장에 드러나기 시작한다.

1)

나는 알지 못한다.

공자가 태산과 동산에 올랐을 때,

정자가 남여로 3일 동안 유람했을 때,

주자가 눈 내리는 남악 중에 유람했을 때도

역시 지금의 나처럼 마음과 눈이 활달했을까?¹⁵⁾

2)

14) 이 중요한 변화의 한 원인은 그 이전 시기에 드러났던 계몽적 지식인들의 반일적(反日的)·비판적인 태도가 한일병합으로 인해 예술적인 태도로 변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권보드래, 『한국 근대의 ‘소설’ 범주 형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1-149면.) 본 연구에서 다루는 것은 그들의 내면성 발견과 여행주체의 형성이다.

15) 成汝信, 「遊頭流山詩」, 『浮查集』 권2, 경상대 도서관 문천각 소장본, 1617. “吾不知夫子之登泰山登東山 程子之藍輿三日晦翁之雪中南嶽 亦如今日之豁心目”(원문)

華盛敦 와싱턴 / 此府는合衆國京城이라 其國의 創業은大統領華盛敦氏의 姓을 取호야 其京城을 名호야 不忌호는 義를 寓함이니 (...) 國會議事堂은 政令과 法律을 議定호는 官府니 其 築造호는 制度의 雄壯함과 形像의 華麗함이 觀者의 眼을 駭호고 物材는 其柱其壁에 白石을 全用호야 皓然히 雲表에 聳出호는者라¹⁶⁾

3)

바라노니, 少年이여 鬱積한일이 잇슬理도 업거니와 잇스면 旅行으로 풀고 歡喜한일이 잇거든 旅行으로 느리고 더욱 工夫의 餘暇로써 旅行에 허비하기를 마음두시오 이는 여러분에게 眞正한 智識을 들뿐아니라 온갖 보배로운것을 다 드리이다.¹⁷⁾

1)은 중세의 유학자 성여신이 지은 기행시 「遊頭流山詩」이고, 2)는 개화기의 서양유학생 유길준이 출간한 서양체험기 『서유견문』이며, 3)은 1900년대에 최남선이 집필한 기행문 『쾌소년세계주유시보』의 일부이다. 이 세 편의 글에서는 여행목적이 서로 차이가 난다. 1)은 공자·정자·주자를 언급하면서 자신이 그들과 유사함을 표나게 강조한다. 중세의 여행은 학문수양의 연장인 것이다. “일상의 배움을 이어서 세상을 읽어가는 또 다른 형태의 배움을 위한 길”¹⁸⁾인 것이다. 2) 역시 유길준은 “國會議事堂은 政令과 法律을 議定호는 官府니 其 築造호는 制度의 雄壯함과 形像의 華麗함”처럼 건물에서 연상되는 서양 정치·법률 등의 지식(견문)을 이해·전달하고 있다. 서양의 지식을 이해하여 조선인의 문명화를 계몽하는 것이 『서유견문』의 중요한 기록 목적이 되는 것이다.

1)-2)와 달리, 3)에서는 여행의 목적이 학문·지식의 이해·수용이 아니라, 서술하는 여행주체 자신의 내면에 향해 있다. 자기 자신을 주목한다는 것은 중세나 개화기의 여행주체가 보여주는 태도와는 다르다는 점에서 관심의 대상이 된다. “鬱積한일이 잇슬理도 업거니와 잇스면 旅行으로 풀고 歡喜한일이 잇거든 旅行으로 느리고 더욱 工夫의 餘暇로

16) 유길준, 『서유견문』, 1889, 일본: 교운사, 490면.

17) 무명, 「快少年世界周遊時報」, 『소년』 1년 1호, 1908.11, 77면.

18) 김기주, 「선비들이 유람을 떠난 까닭 유학(儒學)과 유람(遊覽)」, 『남명학연구』,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15, 137면.

써 旅行에 허비하기를 마음두시오.”라는 구절에서 확인되듯이, 여행의 목적은 외부세계를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일상에서 받는 생활의 여러 압력(‘歡喜한일’)을 푸는 것이다. 이 푼다는 행위는 주체의 시선을 외부세계에서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 전제됨은 물론이다. 이 점에서 여행주체는 외부세계를 무관심하고 냉담하게 대상화함으로써 자신의 내면을 보는 자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1910년 전후의 『소년』지를 뒤져보면, 근대적 여행주체는 일상을 벗어나서 외부세계와 무관하게 자기 자신의 내면을 주목한다는 점에서 무료하면서도 여가를 즐기는 유희적 존재로 등장한다. 놀이·유희·여가란 근본적으로 개체의 생존, 번식, 사회적 관계 조정과 직결되지 않는 사회적 조건에서 발생한다.¹⁹⁾ 근대적 여행주체는 자신의 사회적 일상에서 벗어나서 외부세계를 무관심하고 냉담하게 대함으로써 놀이성·유희성·여가성을 확보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4)

二 나는 이 여름을 바다사기에서 지내겠다.

나는 工夫삼아 消遣삼아 스승도하고 벗도할양으로 金剛山갈 생각도 간절하지 마는 드디어 바다사기로 가기로 決定하고 바야흐로 處所를 가리더니…(중략)…「少年」編輯을 모라쳐 하다. 以下에 記錄한난마는 往返三十二日동안 보고 드른것을 소의 춤갓치 질질 흘너논것이라 쓸대업시 冗長한 紀行文의 上乘일지니라.²⁰⁾

5)

男子한아가 이 婦人을 다리고 가난놈인듯하야 바로 惡魔도 갖고 野次도 갖히 보이더니 이번에는 巨大한 財物을 앗기지아니하고 一片義俠心으로 獸畜보담도 甚히 壓制를 받고 勞役을 하던 코오셰트를 개도야지갓흔 主人에게서 贖出하던 짚발짚갓히도 보여 쓸대업난 생각이 蓮方 갈내가 지난지라 혼자 안자 消遣入 거리는 着實히 되나 그러나 저 婦人이 모른다고 내가 마음대로 그 身分을 臆測함은 德義上 올흔 일이라 못하리라하야 (하략)²¹⁾

19) J. Huizinga, 권영빈 역, 『놀이하는 인간』, 홍성사, 1982, 6-281면.

20) 公六, 「嶠南鴻爪」, 『소년』 2년 8권, 1909.9., 51-52면.

21) 公六, 「嶠南鴻爪」, 『소년』 2년 8권, 1909.9., 60-61면.

4)에서는 여행을 떠나는 계기를, 그리고 5)에서는 여행 중 만난 한 부인을 여행주체가 마음대로 상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근대적 여행주체의 유희성이다. 근대적 여행주체의 여행은 자신의 일상을 떠나고 벗어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놀이적·유희적·여가적일 수밖에 없다. 일상·일터라는 생계공간과 사회·국가라는 정치 공간을 벗어난 자에게 가능한 것은 놀이이다. 중세·개화기의 여행주체가 여행을 학문적 수양이나 지식이해의 연장으로 여겼다면, 근대적 여행주체는 여행을 탈(脫)일상적인 놀이·유희·여가로 여기는 것이다. 4)에서는 “나는 工夫삼아 消遣삼아 스승도하고 벗도할양으로 金剛山갈 생각도 간절하지마는 드디어 바다스가로 가기로 決定”했다는 것에서 확인되듯이 공부로 여기지 않는 바다 여행이 강조된다. 이 글에서 여행은 일상의 연장이 아니라 ‘탈(脫)’일상이 되는 것이다.

5)에서는 이러한 근대적 여행주체가 얼마나 외부세계에 무관심하고 냉담한지를 보여준다. 근대적 여행주체는 “婦人이 모른다고 내가 마음대로 그 身分을 臆測”하는 것처럼 우연히 본 부인(외부세계)에 대해서 인간적인 관심을 표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안자 消遣스거리는 着實히” 하는 것, 즉 자기 마음대로 상상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희와 상상을 통해서 여행주체가 주목하는 것은 외부에 무관심한 자기 자신의 내면인 것이다. 이처럼 외부세계를 무관심하고 냉담하게 대상화함으로써 자신의 근대적 내면성을 확보하는 탈(脫)일상적이고 유희적인 존재가 바로 근대적 여행주체인데, 이러한 주체는 1910년 전후에 들어서야 형성·기록되는 것이다.²²⁾

22) 이러한 근대적 여행주체의 형성에서 주의할 점은, 그 주체라고 해서 그 이전 시기의 학문·지식 이해·수용 양상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모습들도 있지만, 외부세계를 무관심하고 냉담하게 대상화함으로써 자신의 근대적 내면성을 확보하는 탈(脫)일상적이고 유희적인 존재의 양상을 낫설게 드러내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 점은 후술할 근대적 여행객체와 여행매체의 특성 역시 1910년 전후에 들어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3. 주관화·자의화된 근대적 여행객체의 발견

역사적·문화적 의미로 뒤엎힌 장소·명소(여행객체)가 그 아우라를 잃고서 균질적·물리학적인 실체로 나타나고 주관화·자의화되는 근대적 여행객체의 발견은 여행주체의 형성과 그 시기를 함께 한다. 중세·개화기의 여행에서는 공자·정자·주자가 다녀간 역사적·문화적인 장소·명소에서 학문적 수양을 하거나 서양의 장소·명소에서 그 지식을 수용하고 계몽하던 양태를 보여줬지만, 이러한 양태는 1910년 전후에 들어서서 외부세계에 무관심하고 냉담한 여행주체가 출현하면서 바뀌기 시작한다. 여행주체에 의해서 여행객체는 기존의 역사적·사회적인 의미가 상실된 균질적·물리학적인 하나의 실체가 되고, 주관화·자의화된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

근대여행이란 장소·명소가 기존에 지니고 있던 역사적·문화적 의미가 여행주체에 의해서 전유·은폐되어서 의미의 빈 자리를 남겨놓는 실체화의 과정이 전제된다. 역사적·문화적으로 기억되었던 장소·명소는 그 의미에 무관심하고 냉담한 여행주체에 의해서 그 의미가 사라지고 비어있는 하나의 균질적·물리학적인 실체가 되어버린다.²³⁾ 여행주체는 장소·명소의 역사적·문화적 의미를 전유·은폐해버리는 셈이다. 이런 현상은 바다를 바라보는 두 가지의 시각을 드러낸 아래의 기행문에 잘 나타나 있다.

5)

文字로만 푸러도 海는 넓음을意味하고 말노만 드러도 큰것이 생각되나니 그 와갓히 바다는 廣闊한것 雄大한것 淵深한것이라 (중략) 三山이 어디메냐 九嶼도 모르겠다 尾閭에 大鵬이 積雲갓흔 날개를 펴고 扶搖로 오르며 滄嶼에 巨鼈가 平

23) 여행객체가 균질적인 하나의 실체라는 발상은 윤영실 등 선행연구자들의 논문에서 제기된 바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생각을 좀 더 근대주체의 인식론적인 맥락에서 다룬다. 이 균질화에 대해서 여행주체의 영향, 그리고 장소·명소의 역사적·문화적 의미 전유·은폐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윤영실, 「경험'적 글쓰기를 통한 '지식'의 균열과 식민지 근대성의 풍경 = 최남선의 지리담론과 『소년』지 기행문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38, 한국현대소설학회, 2008, 223-244면.)

野갓흔 등을 들고 神山을 디고잇난데 하늘을 삼키랴고 洪波가 凸起하난 더기더
괴서 水天이 相拍한다²⁴⁾

6)

덕은 물스결은 도올 돌 돌 큰 물스결은 타양 탕 탕 돌을 타고는 거품 디고 흙
을 티고는 넉툰이 디난데 밀물에는 行惡을하고 썰물에는 退縮을하야오고 가난
路次마다 모래거던 굴너가고 흙이며는 푸리가서 너의陸地야 얼마나 단단하냐
(중략) 더러운 네몸은 내씨서듀마고 하난듯이 晝夜不撤하고 튜르릉 툄 툄 쑤
하난것은 海의 近景인데.”²⁵⁾

5)와 6)에서는 최남선이 바다(여행객체)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데, 그 바다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두 가지의 방식이 모두 드러나 있다. 5)에서 바다는 동양신화를 참조하면 대붕(大鵬)과 거오(巨鼈)가 지킨다는 중세의 문화적 의미를 지닌다. “大鵬이 積雲갓흔 날개를 펴고 扶搖로 오르며 滄嶼에 巨鼈가 平野갓흔 등을 들고 神山을 디고잇난데 하늘을 삼키랴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서술이다. 조선의 바다가 지닌 신화적·문화적 아우라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으로써 중세의 선비가 바라보는 자연에 대한 시각과 비슷하다.

6)의 바다 서술이 특이한 점은, 5)의 바다가 지닌 신화적·문화적 아우라를 없애버리고서 바다를 균질적·물리학적인 실체로 여겨면서 하나의 단순한 혹은 무의미한 자연현상으로 전제한다는 것이다. 여행주체는 “더러운 네몸은 내씨서듀마고 하난듯이 晝夜不撤하고 튜르릉 툄 툄 쑤하난 것”을 보는데, 이 때 그가 보는 “더러운 네몸”은 기존에 지녔던 신화적·문화적 아우라가 사라져버린 그저 단순한 바다를 전제한 뒤에 의인화한 것일 뿐이다. 그 바다가 파도치는 모습에는 대붕도 없고 신산도 없다. 이러한 기존의 역사적·문화적 의미가 여행주체가 의해서 전유·은폐된 바다(여행객체)는 단지 파도치는 하나의 자연현상(실체)으로 전제·인식될 뿐이다.

또한, 여행주체는 여행객체를 하나의 균질적·물리학적인 실체로 여

24) 公六, 『海上大韓史』, 『소년』 1년 1권, 1908.11, 33면.

25) 公六, 『海上大韓史』, 『소년』 1년 1권, 1908.11, 34면.

기기 때문에 자신의 내면을 투영해서 주관화·자의화된 하나의 풍경으로 보는 것이 가능하다. 여행주체가 바라보는 풍경은 일상 속에서 역사적·사회적인 맥락 속의 외부세계와 다르다. 역사적·사회적인 맥락 속의 외부세계는 주체에 의해서 기존의 의미를 부여받는 익숙한 이미지들이다. 이와 달리 여행객체로서의 외부세계는 일상 속의 그것과는 다른 양상으로 주관화·자의화·풍경화된다.

7)

五月一日 雜誌『少年』의 春期特別卷編輯을 겨우 마치고 나니, 발서 午前十一時二十分이 되엇더라 그러나 술만흔 南山과 들만흔 北陌에 九十韶光에 새를 만나 내 모양 보시오하고 낼수 있난 대로 모양내여 피운 꽃은 參考書冊張 되져 그 속에 잇난 열매를 한줌 두줌 흠쳐내기에 그러케 懇切하게 보아주시오 보아 주시오하난것을 無情도하고 媒精도하게 한번 찾지도 못하고 마랏스니, 꽃이 만일 感情이 強할진대 나를 오죽 怨望하리오²⁶⁾

7)은 서울의 성곽을 순례하는 모습을 묘사한 기행문이다. 이 기행문 속의 여행주체가 바라보는 성곽(여행객체)은 일상 속의 외부세계와 다르다. 여행객체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자체의 역사적·문화적 의미가 사라진 채로, 여행주체의 내면에 의해서 새로운 주관적·자의적인 의미로 풍경화될 뿐이다.

7)에서 서울의 성곽은 나름대로 오랜 역사의 흔적과 신화적·문화적인 아우라가 남아있던 것이었겠지만, 위의 여행주체가 바라보는 것은 그의 내면이 투영된 주관적·자의적인 풍경이다. 꽃은 서울의 성곽이라는 역사나 신화적·문화적 아우라 속에서 관계 맺는 어떤 의미가 아니라, 역사적·문화적 의미가 지워져버린 채로 여행주체의 내면을 투영한 사물로 새롭게 의미화·풍경화된다. 그 꽃은 “꽃이 만일 感情이 強할진대 나를 오죽 怨望하리오”처럼 여행주체의 심리에 의해서 재구성되는 기의일 뿐이다.²⁷⁾ 이 시기의 여행객체 표상이란 역사적·문화적 의미가

26) N.S., 『半巡城記(上)』, 『소년』 2년 7권, 1909.8., 49면.

27) 자연이 여행주체의 심리에 의해서 주관화·자의화된다는 필자의 주장은, 자칫 그 이전 시기에는 없었나 하는 반론이 가능하다. 충분히 일리 있는 반론이다. 그렇지만 본 논문에서는 근대적인 여행주체가 스스로 내면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여

지워져버린 기의의 빈 공간 속에 여행주체의 내면이 투영된 풍경으로 발견되는 양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4. 거리와 구경이라는 스타일을 창조하는 근대적 여행매체

기차·관광단 등의 여행매체가 거리와 구경이라는 여행의 근대적 스타일을 만드는 기호론적인 인식 구도의 전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910년 전후의 여행기록에서는 기차·관광단 등의 근대적 여행매체가 등장하면서부터 여행의 근대적인 인식에 대한 기호론적인 인식 구도의 전도가 일어나는 것이 확인된다. 여행이라는 목적이 우선해서 교통·숙박시설이라는 수단이 생겨난 것이 근대 이전의 여행이었다면, 1910년 전후에 나타난 기차·관광단 등의 근대적 여행매체(수단)는 오히려 거리와 구경이라는 여행(목적)의 근대적 스타일을 창조한다.²⁸⁾

기차·자동차 등의 근대적 여행매체는 여행의 주체·객체 사이에 일정한 물리적 거리를 만들어 서로를 분리하는 근대여행의 스타일을 발명한다. 중세의 여행에서는 여행주체가 말·가마·배를 타거나 도보를 통해서 여행객체를 가까이에서 만나고 오감으로 접촉할 여지가 있었다면, 기차·자동차 등을 이용하는 근대여행은 여행 주체·객체 사이의 일정한 물리적인 거리를 만들게 된다. 여행주체는 기차·자동차의 내부에서 거리를 두고서 그 바깥을 바라보는데, 이러한 여행 주체·객체의 분리는 여행이라는 기호론적인 인식 구도의 전도가 일어나면서 가능하게 된다.

행객체가 기존에 지녔던 역사적·문화적 의미를 지우는 풍경화 과정을 주목하고 있다.

- 28) 이 연구에서는 서양 근대관광의 시작이 기차여행이라는 닝왕의 주장, 그리고 기차가 여행자의 시각에 개입한다는 우미영의 논의를 좀 더 발전시키고자 한다. Ning Wang, 이진형·최석호 역, 『관광과 근대성』, 일신사, 2004, 5-392면.: 우미영, 「視角場의 변화와 근대적 心象 空間 - 근대 초기 기행문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32.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4, 327-351면.

8)

경원선과, 금강산 스이와, 長箭항과 금강산 스이의 도로를 슈리호얏고 장전항에서 산록십지 삼십리에는, 거마를 통하게 호도록, 준비중이며 경원선의, 劔拂浪에서, 洗浦십지는 오는 룩월에 기차가 기통될지라 그런즉, 세포에서, 회양십지 팔십리와, 회양에서 산록에, 일의기십지, 일빅오십리, 합이 빅스십리 되는길은, 별로히 높은 고기도 업서, 약간 슈리호후에는즈동차로, 리왕호기도, 어렵지 안이 홀지요, 회양 부근의 특산인, 습(麻)의 슈출도, 편리케호기위호야, 회양의 유적 혼관은, 근일 즈동차를 스오기로 결덩호얏다하니, 과연 자동차를, 스오게 되면, 금강산구경은, 미우편리홀터이오 또 한편으로는 東京活動寫眞會社에 운동호야 그 절승호 경기를 박어 널니 세상에, 소기호다하니, 세계에 짝이 업다홀만한 금강산은 이로부터 널니 세상의 이목을 놀닉게 되리도다²⁹⁾

9)

마음은 몸을 짜르고 몸은 汽車를 짜라 龍山新開地의 宏壯한 日本宮舎와 日人市井을 놀라면서 새로 짓난 龍山驛舎업헤 暫時멈춘後(중략) 水色驛에서 停車치 아니한 汽車가 一山驛에서 暫時停車하는지라 고개를 들고 내여다보니 酒幕巨里엔 흑불면 날아갈썩한 白衣兩班들이 場보시기에 雜踏한 모양이오 東北方으로 보이난 高峰山에는 蒼翠가 썩어질썩한데 그리로부터 열린 넓으나넓은 들은 익어가난 벼가 豊年 빗흘 썩여 가지런히 고개를 숙였더라.³⁰⁾

8)은 금강산 여행이 기차·자동차로 인해서 편리해질 것임을 알리는 기사의 한 부분이고, 9)는 평양행 기차를 타고 갈 때에 창 밖의 모습을 바라보는 기행문의 한 부분이다. 이 두 편의 글에서는 근대여행이 근대적 여행매체를 통해서 가능한 것임을 암시한다. 8)에서는 근대여행이 기차·자동차를 통해 이루어지고 가능해짐을 보여준다. “劔拂浪에서, 洗浦십지는 오는 룩월에 기차가 기통될지라”와 “회양의 유적 혼관은, 근일 즈동차를 스오기로 결덩호얏다하니, 과연 자동차를, 스오게 되면, 금강산구경은, 미우편리홀터이오”라는 구절에서는 기차와 자동차를 통한 금강산 여행이 준비·기획되고 있음을 제시한다. 금강산 가는 방법이 일단 기차·자동차로 결정·실행되기 시작하면, 그 이후에는 기차·자동차

29) 「金剛을 紹介天下」, 『매일신보』, 1914.4.28., 3면.

30) N.S., 「平壤行」, 『소년』 2년 10권, 1909.11, 134-135면.

없이 금강산 여행을 하는 것은 수궁하기 어렵게 된다. 남들은 기차·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가는데, 자신은 도보나 말을 이용한다면 여가·휴양을 위한 여행이라고 말하는 것조차 어렵게 됨은 물론이다. 이처럼 기차·자동차가 여행매체에 편입되면, 여행주체는 기차·자동차를 통해서 여행을 한다는 인식의 변화를 수용하게 되고, 그러한 인식은 동시대인의 상식이 된다. 이 과정에서 여행이라는 기호는 여행하는 행위보다는 여행매체의 이용이 더 중요한 의미가 되는 기호론적인 인식 구도의 전도가 일어나는 것이다.

기차가 근대여행의 스타일을 창조하는 이 전도의 사건은, 9)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평양행 여행은 평양의 풍물을 보는 것 이전에 기차에서부터 시작되고, 기차의 견문이 때로는 여행의 본질이 되기도 한다. 기차를 타고 있는 여행주체가 창 밖의 여행객체를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것에서³¹⁾ 여행이 시작되고 구체화되는 것이다. “고개를 들고 내어다보니 酒幕巨里엔 흑불면 날아갈듯한 白衣兩班들이 場보시기에 雜踏한 모양”이라는 최남선의 서술은, 여행주체가 여행객체를 일정한 거리를 지니고서 하나의 풍경으로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데, 이러한 거리는 근대적 여행매체(기차)가 이미 여행하기의 본질처럼 여겨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차를 타야 여행이 되는 것이다.

아울러 관광단이라는 근대적 여행매체의 출현은, 근대여행이 일정·코스라는 시공간으로 분할된 구경의 형식이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여행주체가 특정한 관광단을 선택하기만 하면, 여행은 관광단 기획자의 목적·의도에 따라서 일정·코스가 정해지고 계획적으로 진행되는 관광비즈니스의 일환이 된다. 이 과정에서 관광단 속의 개별 주체들은 자기 의지를 떠나서 관광단에 귀속되고 따르는 자, 혹은 정해진 일정에 따른 코스를 구경하는 자가 된다. 여기에서 구경이란 근대적 내면성을

31) 여행주체/객체가 기차 창외 안/밖으로 구분된다는 논의는 존 버거와 우미영의 글에 잘 나타나 있다. 존 버거는 열차 속 인간의 눈이 세계와 격리되어 있음을, 그리고 우미영은 바깥의 풍광 공간과 분리됨을 강조했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논의에서 한발 더 나아가서 기차 등의 여행매체가 근대여행을 창조한다는 생각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John Berger, 편집부 역, 『이미지』, 동문선, 1990, 249-279면.; 우미영, 「視角場의 변화와 근대적 心象 空間 - 근대 초기 기행문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32.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4, 327-351면.

가진 주체가 일정·코스라는 시공간적인 제약 속에서 비교적 쉽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행위라는 점이다. 1910년 전후에 만들어진 조선인 대상의 주요 국내 관광단은 주로 일본·조선총독부 정책의 홍보·합리화를 드러내는 친일적인 목적·의도를 지녔지만,³²⁾ 그 과정에서 여행주체는 구경의 형식을 통해서 여행객체의 역사·문화·정치와 분리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10)

거제관광단(1910.8): 경상남도의 근대식 산업기관·행정기관·교육기관 방문³³⁾

창성관광단(1911.5): 경성의 관청·공업전습소·창덕궁·경복궁과 수원 농사모범장 방문³⁴⁾

과천관광단(1911.5): 경성 관청·공장·창덕궁과 경기도청 방문³⁵⁾

연안관광단(1911.5): 경성 매일신보사·교동보통학교·송현사범학교·숙명여학교·종료청년회관 방문³⁶⁾

평양부인관광단(1911.6): 경성 방문³⁷⁾

아산관광단(1911.7): 수원 모범장·농림학교와 용산 인쇄고·사령부와 경성 공업전습소·미술공장·창덕궁·동양연초회사·총독부 방문³⁸⁾

11)

경성과 평양등 도회처에 신건축한 가옥의 굉장함과 시가의 즐비함과 ■■의 신설함을 보고 돌아가서 세상은 이와갓치 변했거늘 우리는 아즉 7지도 이전의 ■■향대로 조금 진보됨이 업섯스즉 이제부터는 크게 분발하고 힘을 다하여 세상의 진보함을 따라 우리의 모든 일도 새로히 흥기를 (하략)³⁹⁾

32) 김정훈, 「“한일합병” 전후 국내관광단의 조직과 그 성격」, 『역사학연구』 25, 호남사학회, 2005, 187-206면.

33) 「거제관광단일기」, 『慶南日報』 1910.9.16.

34) 「昌城의 觀光團」, 『매일신보』 1911.4.23.

35) 「果川觀光團來京」, 『매일신보』 1911.5.20.

36) 「延安觀光團一行」, 『매일신보』 1911.5.25.

37) 「平壤婦人觀光團」, 『매일신보』 1911.6.13.

38) 「牙山觀光團日程」, 『매일신보』 1911.7.8.

39) 「肅川觀光團의 好果」, 『매일신보』 1912.5.5.

인용 10)은 1910년 전후 주요 관광단의 명칭, 시기, 일정 등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이러한 정리에서 보이듯이, 관광단은 분명한 일정과 코스를 가지고 움직인다. 다시 말해서 여행주체는 관광단을 선택하는 자유가 있기는 하지만, 한번 선택한 뒤에는 관광단의 일정·코스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 관광단 속의 개별 주체는 관광단의 의지와 동일시되거나 혹은 종속·타자화된 자이면서도, 그 의지가 허락하는 한에서 외부세계를 소극적으로 구경하는 자이기도 하다. 거제관광단이 “경상남도의 근대식 산업기관·행정기관·교육기관 방문”하는, 혹은 창성관광단이 “경성의 관청·공업전습소·창덕궁·경복궁과 수원 농사모범장 방문”하는 일정·코스에서 개별 여행주체가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행위는 사실상 외부세계를 구경하는 것밖에 없다.

여행자라는 탈(脫)일상적인 주체가 자신이 간 지역 주민들의 삶이나 역사·문화가 있는 장소·명소와 일정한 거리를 둔 채로 구경하는 것이 중심인 것은 인용 11)에 잘 나타나 있다. 숙천관광단의 결과를 논의하는 지면에서 여행주체는 경성과 평양 등 도회지의 새로운 건축과 가옥과 시가지를 보면서 근대화·도시화의 발전에 놀라고 자신도 그러한 발전에 앞장서야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여행주체는 외부세계를 이방인으로서 구경하면서 자신이 보고 들은 것에 한정된 좋은 느낌을 말할 뿐이지, 근대화·도시화의 구체적인 현장과 그 삶들에서 경험되는 다양하고 복잡한 층위의 모습에 대한 생각까지 나아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관광단이라는 여행매체 속의 여행주체는 여행객체의 역사·문화·정치와 분리된 외부인으로서 구경할 뿐이다. 근대여행은 바로 이 구경을 핵심적인 스타일로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근대여행은 기차·관광단 등의 여행매체가 오히려 거리와 구경이라는 스타일을 창조하는 기호론적인 인식 구도의 전도가 일어나면서 형성된 측면이 있는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1910년 전후 한국 근대여행의 한 기원을 살펴봤다.

그간의 연구사를 통해 볼 때 1910-20년대에는 근대 교통 발달과 일본 여행협회 조선지부 활동, 여행주체의 취미화·여가화, 그리고 국토순례의 측면에서 한국 근대여행이 본격화됐음이 사실이다. 문제는 한국 근대여행의 3요소인 주체·객체·매체가 어떻게 근대의 인식론적인 장에 출현했는가 하는 점이다. 이 연구에서는 가리타니 고진의 논의를 참조하고 1910년 전후의 조선인 국내 여행 주요 기록을 대상으로 해서 근대적 여행 주체·객체의 형성과 근대적 매체의 영향을 분석했다.

먼저, 근대적 여행주체는 중세·개화기의 여행주체와 달리, 외부세계를 무관심하고 냉담하게 대상화함으로써 스스로의 내면을 탐구하며 여가를 즐기는 탈(脫)일상적·유희적 존재였다. 그는 자신의 시선을 외부세계에서 자기 자신에게 돌리고, 무료하면서도 여가를 즐기고 노는 자였다. 그리고 근대적 여행객체는 여행주체에 의해서 기존의 역사적·문화적 의미를 잃고서 균질적·물리화적인 하나의 실체로 발견되고, 주관화·자의화된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았다. 여행주체에 의해서 역사적·문화적 의미가 전유·은폐됐고, 그의 내면이 투영된 새로운 기의를 지니게 됐다. 마지막으로 기차·관광단 등의 근대적 여행매체가 거리와 구경이라는 여행의 근대적 스타일을 창조하는 인식론적인 변화를 살펴봤다. 기차·자동차 등의 근대적 여행매체는 여행의 주체·객체 사이에 일정한 물리적 거리를, 그리고 관광단이라는 근대적 여행매체는 일정·코스를 통해 역사적·문화적인 시공간이 분할된 구경이라는 근대여행의 스타일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때, 한국 근대여행이란 1910년 전후에 근대적 여행주체가 형성되고, 여행객체가 균질적·물리화적인 하나의 실체로 보이면서 주관화·자의화된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으며, 여행매체가 거리·구경이라는 스타일을 창조하면서 기원한 측면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 근대관광의 기원에 대한 접근은 한국 근대여행의 역사를 설명할 때에 나름대로 유의미성을 갖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e origins of Modern Travel in Korea around 1910

Kang, Jeonggu(Sungkyul University)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origins of modern travel in Korea around 1910. Looking at the history of research so far, it is true that modern travel (tourism) in Korea began in earnest in the 1910s in terms of the development of modern transportation and the activities of the Joseon branch of the Japan Travel Association. The problem is how the three elements of modern Korean travel, subject, object, and media, appeared in the modern epistemological field.

First, unlike the traveling subjects of the Middle Ages and the Enlightenment period, modern traveling subjects were non-daily, playful beings who explored their inner self and enjoyed leisure by objectifying the external world indifferently and callously. And the modern travel object lost its existing historical and cultural meaning and was discovered as a homogeneous and physical entity by the travel subject, and was given a new subjectivized and automatized meaning. Lastly, we looked at the epistemological changes in which modern travel media such as trains and tour groups create a modern style of travel called distance and sightseeing.

Modern travel in Korea refers to the formation of the modern travel subject around 1910, the travel object being seen as a homogeneous and physical entity and given a new meaning of

attention and self-identification, and the travel media being distance and sightseeing.

Key words : 1910, modern travel, origin of modern travel, travel subject, travel object, travel media, sights and streets

[참고문헌]

■ 기본자료

『慶南日報』

『매일신보』

『소년』

成汝信, 「遊頭流山詩」, 『浮查集』 권2, 경상대 도서관 문헌각 소장본, 1617.

■ 단행본

강익준, 『관광학개론』, 삼영서관, 2009.

박지향, 『일그리던 근대-100년 전 영국이 평가한 한국과 일본의 근대성』, 푸른역사, 2003.

유길준, 『서유견문』, 일본:교순사, 1889.

이지은, 『왜곡된 한국 외로운 한국 : 300년 동안 유럽이 본 한국』, 책세상, 2006.

柄谷行人, 박유하 역, 『일본근대문학의 기원』, 도서출판b, 2010.

水内俊雄, 심정보 역, 『공간의 정치지리』, 푸른길, 2010.

若林幹夫, 정선태 역, 『지도의 상상력』, 산처림, 2006.

Andre Schmid, 정여울 역, 『제국 그 사이의 한국 1895-1919』, 휴머니스트, 2007.

■ 논문 및 기타 자료

강지혜, 「근대전환기 조선인의 세계기행과 철도 담론」, 『문화와 융합』 39.3., 한국문화융합학회, 2017, 303-332면.

곽상순, 「근대 형성기 소설에 나타난 여행의 의미」, 『시학과 언어학』 19, 시학과언어학회, 2010, 41-65면.

곽승미, 「소년 소재 기행문 연구」, 『現代文學理論研究』 46, 현대문학이론학회, 2011, 5-27면.

구자황, 「근대 교과서와 기행문 성립에 관한 연구」, 『한민족어문학』 69, 한민족어문학회, 2015, 83-113면.

구지현, 「유길준의 『서유견문』에 보이는 견문록의 전통과 확대」, 『온지논총』 37, 온지논총, 2013, 99-123면.

김경남, 「1910년대 기행 담론과 기행문의 성격」, 『인문과학연구』 37,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85~106면.

- 김경남, 「1920년대 전반기 동아일보 소재 기행 담론과 기행문 연구」, 『한민족어문학』 63, 한민족어문학회, 2013, 99-123면.
- 김경남, 「근대적 기행 담론 형성과 기행문 연구」, 『한국민족문화』 47,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3, 93-117면.
- 김기주, 「선비들이 유람을 떠난 까닭 유학(儒學)과 유람(遊覽)」, 『남명학연구』,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15, 137-162면.
- 김동식, 「철도의 근대성」, 『돈암어문학』 15, 돈암어문학회, 2002, 39-67면.
- 김미영, 「근대소설에 나타난 기차 모티프 연구」, 『한국언어문학』, 한국언어문학회, 2005, 235-262면.
- 김상민, 「여행기를 통해 본 동서양의 교류와 소통 : 서양문헌에 나타난 한국 -정형화된 이미지와 사실의 간극」, 『동국사학』 49, 동국사학회, 2010, 177-212면.
- 김정훈, 「“한일합병” 전후 국내관광단의 조직과 그 성격」, 『역사학연구』 25, 호남사학회, 2005, 187-206면.
- 김중철, 「근대 기행 담론 속의 기차와 차내 풍경」, 박찬승 편, 『여행의 발견 타자의 표상』, 민속원, 2010.
- 김중철, 「근대 초기 여행기에 나타난 활동사진의 비유에 대한 연구」, 『한국언어문화』 29, 한국언어문화학회, 2006, 267-289면.
- 김태준, 「유 길준의 『서유견문』에 대하여」, 『한힌샘 주시경연구』 17, 한글학회 2004, 65-80면.
- 김현주, 「근대 초기 기행문의 전개 양상과 문학적 기행문의 “기원”」, 『현대문학의 연구』 16, 한국문학연구학회, 2001, 95-129면.
- 김효주, 「1920년대 여행기의 존재 양상」, 『국어교육연구』 48, 국어교육학회, 2012, 317-354면.
- 박양신, 「일본의 한국병합을 즈음한 ‘일본관광단’과 그 성격」, 『동양학』 37,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05, 69-89면.
- 송명진, 「실경(實景)의 감각과 글쓰기의 근대성 -최남선의 『少年』을 중심으로-」, 『시학과 언어학』, 시학과언어학회, 2014, 85-104면.
- 우미영, 「視角場의 변화와 근대적 心象 空間 - 근대 초기 기행문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32.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4, 327-351면.
- 윤영실, 「‘경험’적 글쓰기를 통한 ‘지식’의 균열과 식민지 근대성의 풍경 = 최남선의 지리담론과 『소년』지 기행문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38, 한국현대소설학회, 2008, 223-244면.
- 이지훈, 「한국 근대문학 형성기의 여행 서사 연구」, 서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1-225면.

- 이현진, 「근대 계몽기의 매체와 담론 ; 근대 초 취미의 형성과 의미 분화」, 『현대문학의 연구』 30, 한국문학연구학회, 2006, 45-70면.
- 조규익, 『국문 사행록의 미학』, 역락, 2004.
- 조성운, 「『每日申報』를 통해 본 1910년대 일본시찰단」, 『한일민족문제연구』 6, 한일민족문제학회, 2004, 3-36면.
- 조성운, 「1910년대 식민지 조선의 근대 관광의 탄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6,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8, 103-146면.
- 조성운, 「대한제국기 근대 학교의 소풍·수학여행의 도입과 확산」,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0,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2, 5-40면.
- 조성운, 「일본여행협회의 활동을 통해 본 1910년대 조선 관광」,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5,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0, 5-32면.
- 조윤정, 「근대 조선의 수학여행과 기행문 쓰기의 방법」, 『동방학지』 168, 연세대학교국학연구원, 2014, 185-214면.
- 한경수, 「개화기 서구인의 조선 여행」, 『관광학연구』 26.3., 한국관광학회, 2002, 233-253면.
- 한경수, 「한국의 근대 전환기 관광(1880~1940)」, 『관광학연구』 29.2., 한국관광학회, 2005, 443-464면.
- 한경수, 「한반도 관광산업의 태동 -개화기 및 일제강점기」, 『관광학연구』 35.10., 한국관광학회, 2011, 349-369면.
- 황민호, 「개항 이후 근대여행의 시작과 여행자」, 『승실사학』 22, 승실사학회, 2009, 5-34면.